

구술자료 상세목록

사업명	미추홀, 살아지다1 ‘신기촌 사람들’				
구술자명	박옥균	면담자	조영숙, 유인숙, 이경희		
면담장소	참피온 체육사	면담지원	-		
면담 일시	2018년 8월 14일(화)	회차	1	시간	45분 3초
자료번호	MichuholCA-07-00001163				
구술 개요	신기촌 일대는 68년도 철거민들의 정착지임. 물건을 조금씩 가져다 팔던 것이 현재는 재래시장 중 손꼽히는 시장이 됨. 과거 화장터 자리에 버스 종점, 진흥요업이 있었음. 당시 송림동보다 집세가 저렴해 신기촌으로 오게 됨. 당시 동네에 체육사가 없어 시작하게 됨. 여유가 생기면 동네 밖으로 떠나 버림. 이웃 간 인정이 많고 단합이 잘 됨. 주거, 주차, 행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.				
주요 색인어	신기촌, 신기시장, 철거민, 10평, 주거환경개선사업, 화장터, 진흥요업, 송림동, 목재, 체육사, 마을금고, 올림픽, 구의원, 주차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	
1. 신기촌에 대한 기억			00:00:00~ 00:09:14	▷ 음성파일	
- 신기촌(신기시장) 일대는 68년도 만석동, 도화동 철거민의 정착지임. 철거민들이 유입되며 10평씩만을 배정 받음. - 90년대에 집 평수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짐. - 68년 당시에는 전기, 수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. - 신기촌으로 전국의 이주민들이 모여 들었음. 이주민들이 모여 들던 초창기 신기촌이 험악한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점차 개선됨. - 물건을 가져다 놓고 조금씩 장사하던 것이 현재는 재래시장 중 손꼽히는 시장이 됨. - 과거 화장터 자리에 마이크로버스 종점과 도자기 공장인 진흥요업이 있었음. - 신기촌은 일종의 소비도시로, 외지에 나가서 번 돈을 신기촌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음. - 지금의 진흥아파트 일대는 산으로, 과거 묘지가 있었음. - (체육사가 있는 곳은) 제일 끝 부분으로 일대가 전부 논, 밭이었음.					
2. 신기촌으로 온 계기			00:09:15~ 00:15:40		
- 집세가 저렴해서 신기촌으로 오게 됨. - 처음에는 송림동에 단신으로 정착하게 됨.					

- 목재에 대한 기술이 없었지만 대성목재에서 일을 시작함. - 신기촌에서 살려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음. - 구의원 당시, 신기촌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10평 안에서 집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.		
3. 체육사를 개업하게 된 계기		
- 통장이었을 당시 각 통마다 마을금고를 만들. - 마을금고를 이용해 만든 구관장의 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회원들끼리 분열이 생겨 물러나게 됨. - 운동(축구)이 취미였는데 마침 동네에 체육사가 없어 시작하게 됨. - 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체육사가 잘 되었음.	00:15:41~ 00:20:51	
4. 구의원 활동		
- 구의원에 두 번 당선된 적이 있음. 이후 다른 후보들에게 넘겨주고 장사에 몰두함. - 같은 시기에 지역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심. - 남부상가, 남광로알아파트 자리는 전부 논이었음.	00:20:52~ 00:27:21	
5. 해결해야 할 문제들		
- 동네가 발전하긴 했지만 생활 인식이 저조한 느낌이 있음. - 사람들이 돈을 벌면 신기촌 밖으로 떠나 버림. - 이웃들이 붙어살다 보니 인정도 많고 단합도 이루어짐. - 작은 평수의 집을 합쳐 건물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. -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따름. 구에서는 주차장보다 쉼터를 조성함. - 동사무소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음. - 동마다 인구가 줄어 통폐합, 동사무소 위치 조정 등의 제안이 있었으나 제약이 많음.	00:27:22~ 00:42:26	
6. 마무리		
- 주안3동과 7동이 합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어려워 보임.	00:42:27~ 00:45:03	